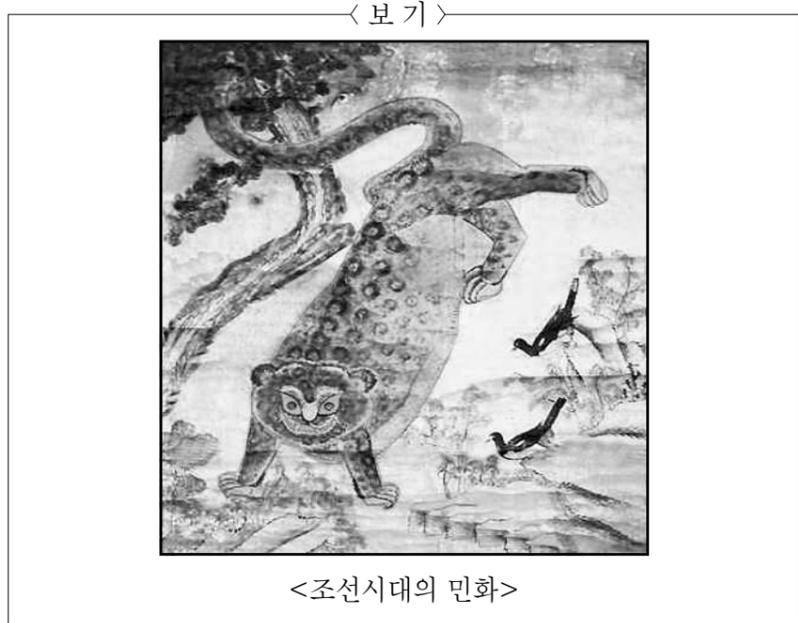


6. '바람직한 리더의 자세'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보기>에서 착안하여 이끌어 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착안 대상	이끌어 낸 내용
한쪽 면보다는 호랑이의 몸통은 옆면, 얼굴은 정면으로 그림	편향된 시각을 갖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①
실제와 달리 호랑이 다리를 몸통에 비해 아주 짧게 그림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현실의 변화를 도모할 줄 알아야 한다. ②
호랑이의 얼굴 표정을 무섭게 그리기보다는 귀엽게 그림	위엄이나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친근감을 드러내야 한다. ③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을 그리기보다는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을 그림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활동적인 면모를 지녀야 한다. ④
기존 회화와는 달리 윤곽선을 뚜렷하게 그리고 색칠하는 방식으로 그림	현실 비판을 중시하기보다는 전망을 제시할 줄 알아야 한다. ⑤

7. <보기>에 따라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하였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p>[문제 인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遺棄)동물(버려지는 동물)들이 증가하면서 사람을 공격하거나 병원균을 옮기는 등 각종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 유기동물이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나 자원봉사단 위주로 어렵게 관리되고 있다. <p>[주제] 유기동물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p> <p>[예상 독자] 정부 관련 부처, 지방 자치 단체</p>

독자 분석	○ 정책 수립에 여론을 반영한다. ○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주체이다. ①
문제의 원인	○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해 동물을 버리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유기 억제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고 유기동물을 주인에게 돌려줄 방법도 없다. ○ 유기동물 관리 시설이 부족하고 관리 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미흡하다. ②
자료 수집	○ 유기동물에 의한 피해 사례를 수집한다. ○ 유기동물 민간 관리 단체의 운영 현황과 구성 절차에 대한 국내외 사례를 조사한다. ③
내용 선정	○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한 홍보 정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④ ○ 동물 유기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애완동물과 그 주인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⑤ ○ 유기동물 관리 시설 확대와 민간 관리 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전개 방식	○ 문제 제기 → 대안 제시 → 실행 촉구

8. <보기>의 개요를 수정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p>주제 : 문화재 복원을 위한 첨단 기술 개발 방안</p> <p>I. 현황 및 필요성 - 훼손된 문화재 복원의 어려움</p> <p>II. 국내 복원 기술의 문제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복원 기술의 경제적 가치 증대 ㉠ 2. 핵심적인 복원 과학 기술의 미비 3.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복원 기술 부재 ㉡ 4.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 <p>III. 첨단 복원 기술 개발 방안</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상 처리, 3차원 측량 등의 첨단 기법 도입 2. 핵심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 3. 문화재 보존과 복원에 대한 인식 제고 ㉣ <p>IV. 전망 - 시장 진출 ㉤</p>

- ① ㉠은 내용을 고려하여 'I'로 옮긴다.
- ② ㉡을 고려해 'III'의 하위 항목으로 '복원 처리 기술의 다양화'를 추가한다.
- ③ ㉢은 '핵심 전문 연구 인력의 양성 및 정부 차원의 지원책 마련'으로 보완한다.
- ④ ㉣은 상위 항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해외 문화재 복원 시장 진출'로 구체화한다.

[9 ~ 10] 다음은 동아리를 소개하는 글의 초고이다. 9번과 10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토론·논술동아리 '줄글'>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줄글'은 교내에서 유일한 토론·논술동아리로 학생들의
 ㉠ 큰 호응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 '줄글'의 주
 요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리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주제를 정해 2시간 정도 토
 론합니다. 토론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 미리 신문의 칼
 럼이나 관련 분야의 책을 읽고 토론에 참여합니다. 토론 후에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글을 써서 다음 모임에서 돌려 읽으며
 서로의 글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다과를 나누면서 토론
 의 뒷얘기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회원들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 증가시킬 수
 있고, 평소 접하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습니
 다. ㉣ 또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게 되어 배경지식을 넓힐 수
 있으며, 논리적이며 비판적인 사고력도 신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활동을 하면서 ㉤ 동아리 간의 친목과 회원들 간의
 우의도 다질 수 있습니다.

[A]

9. [A]에 넣을 표현으로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것은?

- < 보 기 >
- 동아리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을 담을 것.
 - 꽃말의 의미를 담을 것.
 - 역설의 기법을 사용할 것.

맨드라미 : 불변의 사랑	-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맨드라미, 꽃잎이 말라도 형태는 바뀌지 않는 맨드라미처럼 토론·논술에 대한 '줄글'의 사랑은 영원할 것입니다. ㉠
데이지 : 겸손한 아름다움	-	기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토론이 아닌 토론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 '줄글'을 선택한 당신의 것입니다. ㉡
팬지 : 사색	-	푸른 풀숲 곳곳이 고개 숙인 보랏빛 팬지를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줄글'의 회원이 되는 순간, 당신도 사색하는 아름다운 지성인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
에델바이스 : 중요한 추억	-	천사는 천상으로 올라가면서 지상에 존재했던 '중요한 추억'으로 에델바이스를 남겼다고 합니다. '줄글' 활동이 여러분 학교생활의 에델바이스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
개나리 : 희망	-	추운 겨울 동안 꽃 피울 준비를 하는 개나리를 보면 고통이 오히려 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토론·논술에 대한 어려움조차도 희망으로 바꾸는 '줄글'에서 당신을 만나고 싶습니다. ㉤

10. ㉠ ~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문장 성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큰 호응을 얻으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로 바꾼다.
- ② ㉡ : 주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회원들은'을 넣어 준다.
- ③ ㉢ :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상시킬'로 바꾼다.
- ④ ㉣ : 앞뒤 문장의 연결을 고려하여 '그러므로'로 바꾼다.
- ⑤ ㉤ : 앞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므로 삭제한다.

11. <보기1>은 '참다'의 사전 뜻풀이다. ㉠ ~ ㉣에 해당하는 각각의 용례를 <보기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1점]

< 보 기 1 >

참다
 ㉠ 웃음, 울음, 아픔 따위를 억누르고 견디다.
 ㉡ 충동, 감정 따위를 억누르고 다스리다.
 ㉢ 어떤 기회나 때를 견디어 기다리다.

< 보 기 2 >

- a. 영화는 졸음을 못 참아 눈을 감았다.
- b. 삼 년도 참았거든 단 며칠이야 더 못 참으랴.
- c. 나는 재채기가 나오려는 것을 겨우 참아 냈다.
- d. 그녀는 분통이 터지는 것을 참고 주인을 흘겨보았다.
- e. 내가 이번만은 참지만 다음번엔 가만히 있지 않겠다.

- | | | | |
|---|------|------|------|
| | ㉠ | ㉡ | ㉢ |
| ① | a | d, e | c, b |
| ② | a, c | d, e | b |
| ③ | b, e | a, d | c |
| ④ | c, d | a, b | e |
| ⑤ | d, e | a, b | c |

12.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제 시간에 도착했는지 모르겠다.
☐ 벌써 집 떠난 지 삼 년이 지났다.

‘-ㄴ’과 ‘지’는, ‘-ㄴ지’와 ‘-ㄴ 지’의 형태를 이루어 쓰인다. 전자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이고, 후자는 관형사형 어미 ‘-ㄴ’과 의존명사 ‘지’로 쓰이는 경우이다. ㉠ 이처럼 어미와 의존명사가 겹으로 붙 때 형태가 같아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 ① ☐ 미리 자 돌걸.
☐ 후회할 걸 왜 그랬니?
- ② ☐ 집에 가서 다시 연락할게.
☐ 학교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아.
- ③ ☐ 이렇게 보다니 정말 오랜만이군.
☐ 그 친구를 십 년 만에 만났다.
- ④ ☐ 학교에 가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다.
☐ 이 일을 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⑤ ☐ 서류를 검토한바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었다.
☐ 평소에 느낀 바를 말해라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나문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年輪)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珊瑚)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취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지는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年輪)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年輪)」 -

(나)
차운 물보라가
이마를 적실 때마다 [A]
나는 소년처럼 울음을 참았다.

길길이 부서지는 파도 사이로
견잡을 수 없이 나의 해로(海路)가 일렁일지라도

나는 홀로이니라,
나는 바다와 더불어 홀로이니라.

일었다간 스러지는 감상(感傷)의 물거품으로
자폭(自暴)의 잔(盞)을 채우던 옛날은
이제 아득히 띄워보내고,

원목을 내어맡긴 천인(千仞)*의 깊이 위에
나는 꽃처럼 황홀한 순간을 마련했으니

슬픔이 설사 또한 바다만 하기로
나는 뉘우치지 않을
나의 하늘을 꿈꾸노라.

- 김종길, 「바다에서」 -

* 천인 : 천 길이라는 뜻으로, 매우 높거나 깊음을 이르는 말.

(다)
슬프나 즐거오나 옳다 하나 외다 하나
내 몸의 해울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밧기 여남은 일이야 분별(分別)할 줄 이시랴. <제1수>

내 일 망녕된 줄 내라 하여 모랄 손가.
이 마음 어리기도 님 위한 탓이로세.
아모 | 아무리 일러도 임이 헤여 보소서. <제2수>

추성(秋城) 진호루(鎭胡樓) 밧기 울어 예는 저 시내야.
무음 호리라 주야(晝夜)에 흐르는다.
님 향한 내 뜻을 조차 그칠 뉘를 모르나다. <제3수>

피흔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아버이 그린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 <제4수>

아버이 그릴 줄을 처엄부터 알아마는
님군 향한 뜻도 하늘이 삼겨시니
진실로 님군을 잊으면 괴 불효(不孝)인가 여기노라. <제5수>

- 윤선도, 「견회요(遣懷謠)」 -

13. (가) ~ (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③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는 화자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 ④ 화자가 실현시키고자 하는 규범적 가치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지향하고자 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내면세계가 드러나 있다.

[19 ~ 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적인 대화는 언어 지식에서 얻은 문장의 의미 해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일상생활에서의 표현과 이해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 화용상의 암시는 이들의 상호 작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1) 영이는 일등이 아니다.

어떤 대화 상황에서는 (1)의 의미가 ‘철수가 일등을 하였다.’의 내용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표면적으로는 (1)에서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없지만, 화자와 청자가 철수와 영이를 알고 있고 두 사람이 일·이등을 다투어서 영이나 철수가 일등 아니면 이등을 할 것을 알거나 그렇게 믿고 있으면 이런 의미가 도출된다. 이렇게 화자나 청자 또는 상황에 의해서 도출해낼 수 있는 내용을 화용상의 암시라고 한다. 이 화용상의 암시는 (1)과 같은 표면적인 의미와, (1)의 배경이 되는 지식과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파악할 수 있다. 즉, 언어 지식에 의하여 발화에서 영이는 일등이 아니라는 명제를 이끌어 내고,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언어 밖의 지식과, 화자와 청자가 지니고 있는 추리 규칙에 의하여 철수가 일등이라는 명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화자와 청자가 공동의 지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 A : 철수가 영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B : 철수는 어려서 개미를 가지고 놀곤 하였지.

[A] (2)의 경우, B가 A와 관련된다고 생각하지만 공동지식이 없다면, 이 B의 발화를 들은 A는 어떤 전제를 추리하게 된다. 철수가 이상한 취미를 가지고 있고 영이를 좋아하는 것이 이상한 취미라면 영이는 어딘가 개미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한다. 선행 발화에 대해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예상되는 전제와 함께 화자가 한 말에서 청자가 끌어내는 화용상의 암시가 대화상의 암시가 되는 것이다. 곧 언뜻 듣기에는 관련이 없는 발화문이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 갖는 화용상의 암시를 ㉠ 대화상의 암시라고 한다.

언어 지식에서 얻는 문장의 의미 해석 외에 한 발화는 다음과 같은 화용상의 암시를 갖는다. 선행 발화문과 관련시키는 데 필요한 공동 지식을 바탕으로 한 화용상의 암시, 공동의 지식은 아니지만 두 말을 결합하는 데 필요한 전제, 이 전제에서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화상의 암시가 이에 포함된다. 이러한 화용상의 암시는 일반적인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가 남과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에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을 갈라놓을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19. 위 글로 보아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원활한 의사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① 선행 발화에서 끌어낸 추리 규칙으로 가능하다.
- ② 언어 지식에 의한 발화의 의미 해석으로 가능하다.
- ③ 발화들을 결합하는 전제에서 의미 추론으로 가능하다.
- ④ 대화 참가자들의 대화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가능하다.
- ⑤ 언어 지식과 언어 밖의 지식과의 상호 작용으로 가능하다.

20. [A]로 보아 ㉠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언어 지식	㉡. 추리 규칙	㉢. 공동의 지식
----------	----------	-----------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21.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서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구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갑: 어제 열린 체육대회에서 너희 반 우승했니? ㉠
 을: 둘 더하기 둘이면 넷이지. ㉡
 갑: 이번에는 다친 사람이 없었어? ㉢
 을: 달리기 경기에서 경희까지 발목을 빼었어. ㉣
 갑: 경희가 다쳐서 윤호가 마음이 아프겠네. ㉤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구분
㉠: 어제 체육대회가 열렸다.	문장 의미 해석 ... ①
㉡: ‘을’의 반이 체육대회에서 우승했다.	대화상의 암시 ... ②
㉢: 지난번에는 다친 사람이 있었다.	대화상의 암시 ... ③
㉣: 경희가 달리기 종목에 참가했다.	문장 의미 해석 ... ④
㉤: 윤호가 경희를 좋아한다.	화용상의 암시 ... ⑤

22. <보기>는 결합하는 을 사전에서 찾아 본 내용이다. ㉠와 같은 제약이 나타나 있는 것은?

< 보기 >

결합하다 : [...과] ㉠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나 목적어로 온다.

- ① 문장들을 서로 견주어 차이를 알아보았다.
- ② 누나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 ③ 깜빡 잊고 친구들에게 약속 장소를 말하지 않았다.
- ④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맞히면 상품을 드립니다.
- 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일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는 다릅니다.

[23 ~ 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의 감각을 흉내 내는 기술들은 끊임없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다른 감각에 비해 후각은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과학자들은 ‘전자코(electronic nose)’라는 기계를 발명하면서 후각의 신비에 도전하고 있다.

1980년대 연구자들은 전류가 흐르는 센서에 어떤 기체분자가 닿을 경우 센서의 전기 저항값이 바뀐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 저항값의 변화를 적당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분석해 좌표상의 한 점으로 변환하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그 기체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 이 과정이 마치 사람의 코에서 일어나는 일과 비슷해 ‘전자코’라는 장치를 만들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인간의 후각은 이보다 매우 정교하다. 콧속 천장에 있는 후각상피라고 불리는 부분은 콧구멍을 통해 흘러 들어온 냄새분자를 감지하는 곳으로, 후각상피세포의 표면에는 냄새분자를 감지하는 약 1천 가지의 냄새수용체 단백질이 있다. 이 수용체로 사람은 1만 가지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데 반해, 최근 발표된 전자코의 냄새수용체 센서도 아직 십여 종에 불과하다.

최초의 상업적인 전자코는 1993년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일련의 금속산화물이 냄새센서로 쓰였다. 6~12가지 센서에서 나오는 전기 신호를 데이터로 처리하여 좌표상의 한 점으로 변환하는 방식을 이용한 것이다. 이후에는 센서의 재료로 플라스틱을 활용했으나 전기를 전도하는 플라스틱의 수가 많지 않아 감지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수가 제한돼 있다는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최근 한 연구팀은 새로운 방식의 전자코를 개발했다. 감지재료로 보통의 플라스틱에 탄소 입자를 섞는 방식을 이용하여 전기가 전도되도록 한 것이다. 즉 다양한 플라스틱을 사용해 여러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를 만들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자코가 실용화된다면 그 쓰임새는 매우 다양할 것이다. 사람의 코는 매우 우수하지만 항상 일정한 것은 아니며 냄새의 강도를 수치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냄새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가 없다. 하지만 전자코가 사람의 코를 대신할 수 있는 ㉡ 진정한 ‘인공코’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현재의 전자코는 사람이 냄새를 맡을 수 없는 물질과는 종종 반응하는 반면, 냄새가 강해 사람이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는 농도인데도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많다. 그나마 센서의 감도는 대체로 1ppm(1백만분의 1) 내외로 사람의 후각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 또 지금까지 개발된 센서 중 실제로 응용할 만한 것은 수십 종에 지나지 않는다. 센서가 되기 위해서는 휘발분자와 결합할 때 그 결합이 일시적이어야 하고 센서분자가 변형되면 안 되며, 같은 분자에 대해서는 언제 측정해도 똑같은 신호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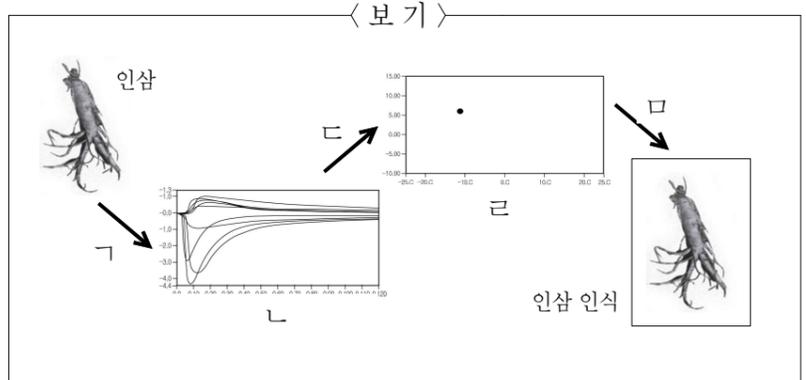
23. 위 글로 미루어 볼 때, ㉠이 실현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ㄱ. 냄새센서의 종류 확대
 ㄴ. 냄새센서의 감도 개선
 ㄷ. 냄새센서의 처리 속도 개선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24. [A]를 참고하여 ‘전자코’가 인삼 향기를 인식하는 과정을 <보기>와 같이 정리하였다. ㄱ~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 : 금속산화물 센서나 플라스틱을 활용한 센서가 인삼의 향기 분자들을 감지한다.
 ② ㄴ : 인삼의 향기 분자들이 센서의 전기 저항값에 변화를 가져오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③ ㄷ : 전자코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냄새수용체 단백질이 지닌 패턴을 분석한다.
 ④ ㄴ : ㄷ의 패턴 분석의 결과를 좌표상의 한 점으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⑤ ㄴ : 전자코는 ㄴ의 점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삼향의 좌표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25. ㉠로 볼 때, ‘전자코’가 필요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식품의 유효 기간을 냄새로 확인해야 할 때
 ② 인체 유해 가스 여부를 냄새로 판별해야 할 때
 ③ 인터넷으로 음식을 냄새와 함께 광고해야 할 때
 ④ 마약탐지견 대신 냄새로 마약을 탐지해야 할 때
 ⑤ 향수의 향기를 미세하게 조정해서 판매해야 할 때

26. [A]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손이 천장에 닿다.
 ② 그에게 기별이 닿았다.
 ③ 그의 말은 이치에 닿는다.
 ④ 기회가 닿으면 연락하겠습니다.
 ⑤ 모르는 사이에 버스 정류소에 닿았다.

[27 ~ 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김 숙자 씨 농담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는 꼭 있어야 할 그 어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숙자 씨에게도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누구일지는 모르겠지요. (사이) 사막에도 꽃은 피니까요.

숙자 김 선생,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잘 하시면서 제게는 그이가 있지 않아요.

김 물론 알고 있지요. 꼭 돌아오시리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한낱 마음의 그이겠지요. 제가 학창시절부터 마음속에 간직하여 오던 숙자 씨를 그 친구에게 놓쳐버리기는 하였습니다만 마치 숙자 씨께서 꼭 돌아오시리라고 믿으면서 기다리는 한낱 마음의 그이인 것처럼 제게도 꼭 돌아오리라고 믿으면서 지금껏 기다리는 마음의 숙자 씨였습니다.

숙자 아이, 그런 말씀은 말아 주세요. 저는 꼭 (그러나 좀 말이 흐른다.) 그이가 살아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김 항시 믿는다는 것, 그리고 더욱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인간의 더없이 좋은 태도겠지요. 하지만 숙자 씨 현실은 항상 더없이 진실한 인간의 믿음과 기다림을 너무도 무참하게 왜곡시키는 수가 많더군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예고 없이 남편이 돌아올 것이라는 김의 말을 들은 숙자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A]

숙자 꽃을? 왜요? 왜 사오셨어요?

김 사실을 말씀드리죠? 며칠 전 우연히 길가에서 친구를 만나 숙자 씨께서 기다리시는 그이의 소식을 듣고 국방부로 달려갔습니다. 약의에서가 아닙니다. 저도 몹시 그이의 소식을 알고 싶었습니다. 실종을 하였다가도 돌아오는 사람이 간혹 있으니까요.

숙자 (일종의 기대와 환희에 잠기면서) 그래서요?

김 (잠시 무거이 침묵을 지키다) 돌아옵니다. (영철, 이때 문안으로 들어서다 문에 기대어서 숨은 채 그 말을 듣는다.)

숙자 (벌떡 일어나며 놀라움에 차서) 돌아오신다고요? (확 눈물에 젖는다.) 돌아오신다고요?

김 (잠깐 사이) 그러나 숙자 씨의 오빠를 보십시오. 또는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숙자, 거의 절망적으로 쓰러지려 하다가 그냥 의자에 쓰러진다.)

영철 (그 말에 분노가 치미는 듯 그러나 냉정한 태도로) 잃어버렸건 잃어버리지 않았건 결국 아무 것도 아닌 거야. 다- 그런 걸 태지. 나도 남 못지않게 지식과 지성, 도덕, 인간, 정리, 그 외의 온갖 것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뭐란 말이야, 전쟁 속에 휩쓸려 들어갔을 때 그 따위들은 단 세 푼어치의 값도 못되는 개수작밖에 못 되었어. 다만 인간을 살해하는 무기만이 최대의 위력을 가지고 내 눈 앞에 나타났을 따름이었다. 인간이고 지성이고 정리고 다 뭐였나 말이다. 그래 것처럼 고귀하다고 피땀을 흘려가며 쌓아가던 것이 그래 무슨 가치가 있었나 말이다. 아무 것도 없었어. 아무 것도 아닌 거야. 나에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말이다. 다만 다시는 돌아올 수 없기를 바라면서 이 어두운 무덤 속 같은 움막 속을 뛰어 나갔다가도 또다시 나도 모르게 돌아와야만 하는 그것뿐인 거야. 나도 모른다. (마치 혼잣말처럼) 모르겠단 말이다. 왜 내가 그렇게 싫어하면서도 돌아와야 하는지-

(문 밖에서 부르는 소리 난다.)

우편배달부 여기가 정숙자 씨 댁입니까?

화자 (얼핏 일어나서 나간다.) 네. (편지를 받아 들고 들어오며 봉투 앞뒤를 살피면서 띄엄띄엄) 국방부에서 온 것 같어.

숙자 (성급히 일어나며) 어디. (화자한테로 다가가서 봉투를 받아 들고 뜯는다.)

(화자, 언니의 표정만 초조로이 지키고 섰다. 김은 쓸쓸히 서 있고 영철이는 스트레이처* 위에 무관심한 것처럼 벌떡 쓰러져 앉는다.)

숙자 아- 그이가.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쓰러진다.)

김 (급히 숙자를 부축하여 일으키며) 숙자 씨, 숙자 씨, [흰 꽃] 속에 사람은 가고 새로운 출발은 [흰빛]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 오상원, 「잔상」 -

* 스트레이처 : 들것.

27. <보기>는 [A] 부분의 무대 모습을 상상한 것이다. 대본을 고려할 때,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무대에는 ㉠ 넓아빠진 스트레이처와 삐걱거리는 의자, 결상들이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중앙에 식탁 비슷이 마련된 테이블이 있다. ㉡ 방안은 어두침침하고 답답한 분위기를 풍기며 습기가 흐르고 구질구질하다. 테이블 위에는 꽃다발이 하나 놓여 있다. ㉢ 김이 사운 하얀 꽃다발이다. ㉣ 숙자와 김, 화자가 방안에 있고, ㉤ 영철은 문에 기대어 숙자와 김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8. <보기>의 ‘나’가 자신의 주변 인물들을 모델로 위 글을 썼다고 가정할 때, 위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는 자주 불우하고 모순에 가득 찬 인물들에 둘러싸인다. 전쟁관에서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불구가 된 자, 비겁한 자, 패기에 찬 젊은이, 거지 등 별의별 족속들이 떼거리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한때 나와 호흡을 같이 했고 피를 나눈 사람들로 정치적·경제적 불안 속에 허덕이며 거리를 헤매다 나의 비좁고 먼지 낀 방으로 지친 몸들을 이끌고 어슬렁거리며 모여든다. 빈혈과 영양실조에 걸린 이 불우한 인물들…….

- ① ‘영철’의 분노는 ‘나’와 호흡을 같이 한 사람들의 생각이겠군.
- ② ‘숙자’는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는 과정을 보여주는 인물이겠군.
- ③ ‘영철’은 전쟁관에서 육체적으로 불구가 된 인물로 볼 수 있겠군.
- ④ ‘그이’는 불우한 인물들의 결말이 부정적일 것임을 암시하는 인물이겠군.
- ⑤ ‘김’은 패기에 찬 젊은이로 경제적 불안을 이겨내고자 하는 인물이겠군.

29. [흰 꽃], [흰빛]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흰 꽃'은 곳곳이 지켜나갈 내면의 순수 의지를 나타낸다.
- ② '흰 꽃'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에게 전쟁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 ③ '흰빛'은 전쟁으로 혼탁해진 세상을 바로 잡으려는 열정을 나타낸다.
- ④ '흰빛'은 전쟁으로 인해 흩어진 가족들에게 재회의 희망을 갖게 한다.
- ⑤ '흰 꽃', '흰빛' 모두 전쟁 통해 죽은 자들을 향한, 살아남은 자들의 미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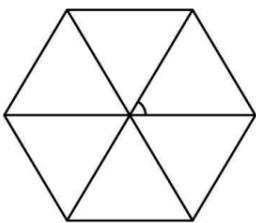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우리는 일상 어디에서나 타일을 쉽게 볼 수 있다. 정4각형 타일이 깔린 바닥은 흔히 건물에서 볼 수 있고 가끔은 독특한 모양의 타일을 깔아 한껏 멋을 낸 길을 걷기도 한다. 면에 빈틈없이 타일을 까는 과정을 타일링(tiling)이라고 한다. 타일링을 인테리어 장식의 하나라고 넘겨 버릴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수학적 원리가 숨어 있다.

수학적으로 정의하면 타일링은 평면에 겹치지 않고 빈자리가 생기지 않게 배치한 도형의 집합이다. 타일링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아무 도형이나 겹치지 않게 바닥에 깔 뒤 빈 자리가 있을 경우 거기에 맞는 도형을 만들어 끼워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런 조건이 없는 타일링은 미적으로도 가치가 떨어지고 수학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 수학자들은 다양한 조건을 만들어 이를 충족하는 타일링을 찾고 거기에서 어떤 법칙을 이끌어 냈다. 구조적으로 가장 단순하면서도 대칭적인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을 보자.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으로 만든 것인데 각각의 도형은 변끼리 만나야 한다. 평면에 만들 수 있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은 몇 가지나 될까? 여기에 대한 답을 준 사람은 17세기 천문학자로 '케플러의 법칙'을 남긴 요하네스 케플러이다. 그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모두 11가지라고 증명했다.

이 가운데 동일한 정다각형으로만 만들 수 있는 타일링, 즉 '규칙적인 타일링'은 정3각형, 정4각형, 정6각형 3가지뿐이다. 평면에서는 한 점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각도가 360°인데, 이 각도를 정다각형의 한 내각으로 나눌 때 정수가 되어야 도형이 겹치거나 빈자리가 생기지 않고 평면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정삼각형의 경우, n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는 $180(n-2)/n$ 이므로 정삼각형(n=3)의 한 내각은 60°, 이 60°로 360°를 나누면 정수 6이 되므로 평면의 한 점을 중심으로 정삼각형 6개의 꼭짓점이 모이면 평면이 채워진다는 것이다.



$6 \times 60^\circ = 360^\circ$

그리고 나머지 8개는 반(半)규칙적인 타일링으로 변의 길이가 같은 정다각형 두 가지 이상이 조합되어 있다. 정3각형, 정4각형, 정6각형은 규칙적인 타일링을 이룰 수 있으면서 서로 결합해서 반규칙적인 타일링도 이룰 수 있다. 이와 달리, 정8각형이나 정12각형은 자기들끼리는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을 만들 수 없지만 정3각형이나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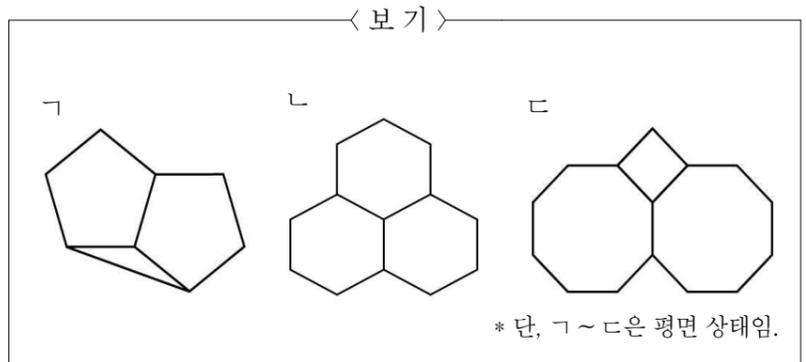
4각형, 정6각형과 짝을 이루면 가능하다.

수학의 관점에서 타일링은 2차원뿐 아니라 모든 공간에 적용될 수 있다. 2차원 공간은 면적이므로 면적을 지니는 2차원 타일로, 3차원 공간은 부피이므로 부피를 지니는 다면체로 채우면 되는 것이다. 물론 4차원, 5차원 공간에서도 타일링이 가능하지만 추상적 사고에 능숙한 수학자가 아닌, 3차원 공간에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렵다.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3차원 타일링은 정6각형 구조로 되어 있는 '벌집'이다.

30.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학의 신비로움
 - 실체를 드러낸 타일링의 비밀
- ② 수학과 과학의 만남
 - 타일링의 원리를 밝힌 과학의 힘
- ③ 타일링의 수학적 의미
 - 도형에서 발견하는 장식적 아름다움
- ④ 일상에 담긴 수학의 원리
 - 정다각형을 이용한 타일링의 세계
- ⑤ 수학자들의 법칙 발견 과정
 - 도형의 집합이 만드는 타일링의 원리

31. 위 글로 보아 <보기>의 ㄱ~ㄷ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ㄱ은 아르키메데스 타일링이 아니다.
- ② ㄱ, ㄴ은 수학적 조건을 갖춰 미적으로 가치가 높은 타일링이다.
- ③ ㄴ을 이루는 도형을 활용하여 반규칙적인 타일링을 만들 수 있다.
- ④ ㄴ은 규칙적 타일링, ㄷ은 반규칙적 타일링에 해당한다.
- ⑤ ㄱ, ㄴ, ㄷ은 모두 수학적 정의에 부합하는 타일링에 해당한다.

32. ㉠의 과정에서 수학자들이 품었음직한 생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평면을 도형으로 채우는 방식에 규칙이 존재할 것이다.
- ② 정다각형을 조합하여 평면을 빈틈없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 ③ 평면을 채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도형의 종류는 제한적일 것이다.
- ④ 3차원의 공간을 채우는 방식은 평면에서의 방식과 동일할 것이다.
- ⑤ 도형이 겹치지 않도록 평면을 채우려면 내각의 크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게. 염병 돌듯이.”
 아내는 빠른 입놀림으로 이렇게 험뻑거리듯이 지껄었다. ㉠ 나는 그 아내를 금방 신내리는 무당 쳐다보듯이 을씨년스러운 느낌 섞어 쳐다보았다.
 “돌아다니다니, 대체 무슨 소리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저 집에서 이 집으로.”
 “그때 그 **고무신짝**은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렸지 않아.”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그날 밤 당신이 들어오시기 전에 내가 다시 들고 나갔던 거예요.”
 “무엇이? 그럼 어느 집 담장 너머로 버렸었다는 말인가?”
 “그렇지요.”
 아내는 당연하다는 듯이 약간 우락부락한 얼굴까지 되며 말하였다.
 “왜?”
 “왜라뇨. 당신 그걸 지금 나한테 따져 묻는 거예요?”
 “던지긴 어느 집으로 던졌어?”
 “몰라요.”
 “.....”

[A] 그러나 이렇게 된 모양이다. 새벽 일찍 뜰 한가운데 그 고무신짝이 떨어진 것을 본 그 어느 집의 부부들도 찌영한 느낌에 휘어감기며 간밤내 근처에서 들리던 굵직한 쾅소리 같은 것을 떠올리며 공포감에 사로잡혔을 것이다. 별로 복잡하게 궁리할 것도 없이, 그날 낮이든가 밤에, 이웃집 아무 집에건 담장 너머로 그 고무신짝을 훌쩍 던졌을 것이다. 남편 모르게 아내가, 혹은 아내 모르게 남편이. 그만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액은 이웃집으로 옮겨 보내고, 제 집은 일단 마음을 놓았을 것이다. 그러자 담장 안에 웬 고무신짝 하나가 떨어진 것을 본 그 집에서도, 그렇게 제 집으로 들어온 액을 떨리는 못 쫓고 그날 낮이면 낮, 밤이면 밤에, 근처 이웃집으로, 또 던져 버렸을 것이다. 그 이웃집에서는 다시 이웃집으로, 또 그 이웃집으로, 순이네 집에서 영이네 집으로 영이네 집에서 웅이네 집으로, 웅이네 집에서 건이네 집으로 이런 식이었을 것이다. 모두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터여서 자존심들은 있었을 것이다. 모두가 합리적인 사람 대우는 대우대로 받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우는 대우고, 겪는 것은 겪는 것이다. 그들은 서로 상처 한 군데 입음이 없이 그 고무신짝만 이웃집 담장 너머로 던지면 되었던 것이다.

(중략)

“대체 저놈의 것을 어찌지?”
 ㉡ 나는 이미 액투성이 때가 엉기엉기 묻은 듯한 그 고무신짝을 만지기도 싫어서, 엇비슷이 건너다보며 투덜거렸다.
 “어찌긴 어째요, 놔두세요, 내가 처리할게.”
 아내는 독오른 표정이 되며, 악착같이 해보겠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처리하다니, 어떻게?”
 “아주 멀멀리 보내지요. 이따가 밤에.”
 “산에라도 가져다가 버릴 요량인가?”
 “뭣 허러 산에 가져가요. 우리가 그렇게 질 수는 없는 거 아녜요.”
 하고 아내는 발끈하며 다시 말하였다.
 “밤에 저놈의 걸 들고 버스 타고 멀리 가져갈 테예요. 하다못해 동빙고동에라도.”

“어러러.”
 ㉢ 나는 입을 벌리며, 악착같이 해볼 기세인 시뻘게진 아내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았다.
 동시에 국민학교 4학년 적의 그 지카다비* 짝과 그때 그 큰 산이 구름에 갑복 가려졌던 교묘한 산천을 떠올렸다.
 “큰 산이 안 보여서 이래, 모두가.”
 내가 나지막하게 혼잣소리로 중얼거리자, 아내도 나를 귀신 내리고 있는 박수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있었다.
 “당신 이제 무슨 소리 했수. 대체 큰 산이 뭐유, 큰 산이?”
 “.....”

[B] 그 큰 산은 청빛이었다. 서쪽 하늘에 늘 덩더룻이 웅장하게 퍼져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혹은 네 철을 따라 표정은 늘 달랐지만, 근원은 뿌리깊이 일관해 있었다. 해뜨기 전 새벽에는 청청한 빛으로 상상하고, 첫 햇별이 쪼면 산머리에서부터 백금색으로 빛나고, 햇별 속의 한낮에는 멀리 물러앉은 청빛이었다. 해질녘 저녁에는 골짜기 하나하나가 손에 잡힐 듯이 거뭇게 윤곽을 드러내고, 서서히 보랏빛으로 물들어간다. 봄에는 봉우리부터 여드러워지고, 겨울이면 흰색으로 험준해진다. 가을에는 침착하게 물러앉고, 여름이면 더 높아 보인다. 그 큰 산 쪽으로 샨바람이 불면 비가 왔고, 큰 산 쪽에서 바다 쪽으로 맞바람이 불면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개었다. 그 큰 산은 늘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형태 없는 넉넉함으로 자리해 있었다. 그 큰 산이 그곳에 그렇게 그 모습으로 뿌리 깊게 웅거해 있다는 것이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깊숙하게 늘 안심이 되었던 것이다.
 ㉣ 아, 그 큰 산, 큰 산.
 그날 밤 아내는 악착같이 해볼 기세로, 시뻘게진 얼굴로 그 고무신짝을 신문지에 둘둘 말아 싸가지고 어디론가 나갔다가, 아홉 시가 지나서야 비시시 웃으며 들어섰다. 과연 나갈 때의 뭉뚱그려진 표정은 가셔지고, 무거운 짐이라도 벗어 놓은 듯이 분위기가 한결 개운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아무 소리도 안 물었고 아내도 구태여 아무 소리도 안 하였다. ㉤ 우리는 이렇게 이 정도로는 서로 존중해 줄 줄을 알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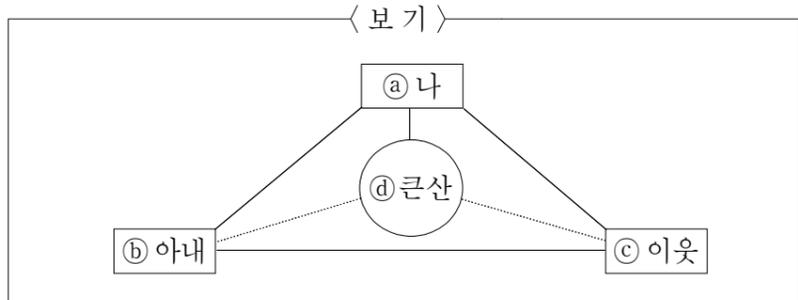
- 이호철, 「큰 산」 -

* 지카다비 : 일본식 작업용 신발.

3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사회적 갈등에, [B]는 대상 묘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고 있다.
- ② [A]는 보여주기 방법으로, [B]는 말하기 방법으로 장면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화자가 사건을 추측하여, [B]는 화자가 소년 시절을 회상하여 전달하고 있다.
- ④ [A], [B] 모두 단정적이고 객관적인 진술로 사건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A], [B] 모두 감성적인 언어를 적절하게 구사하여 작품의 미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34. 위 글의 인물들과 큰 산의 관계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하였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큰 산이라는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은 ㉡, ㉢를 비판하면서 큰 산을 통해 부정적 현실을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
- ③ ㉡, ㉢는 큰 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한 채 이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④ ㉣는 모든 사람들을 넉넉하게 해 주는 근원적인 동질성을 함축하고 있다.
- ⑤ ㉠, ㉡, ㉢는 모두 큰 산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다.

35. **고무신짚**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공동체의 운명을 보여준다.
- ② 갈등 해소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③ 인물들의 내재된 의식을 드러낸다.
- ④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킨다.
- ⑤ 인물들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된다.

36. ㉠~㉣에 나타난 '나'의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 대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대상에 대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 ③ ㉢: 예상 밖의 상황에 대해 어이없어 하고 있다.
- ④ ㉣: 대상에 대한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비합리적인 태도를 묵인하고 있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서양 근대 철학을 특징지은 두 가지 중요한 변수로는 무엇보다도 자연과학의 발달과 자아의 발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학이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의 세계, 즉 현상세계에 국한된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변수에 주목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자아의 발견이다.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로부터 시작된 '주관성의 철학'은 이제 생각하는 주체(자아)와 생각되는 대상(세계)의 분리를 가져왔고, 이로써 근대 철학은 '주관이 어떻게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알 수 있는가?'라는 과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인식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철학은 그 출발에서부터 불가피하게 회의론과 불가지론(不可知論)을 내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인식론은 주-객이 아

직 분리되지 않았던 '낙원(모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방된 인간의 운명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나'라는 존재가 주변 사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로부터 따로 떨어져 인식될 수 없었던 삶의 구도로부터 이제 독자적인 자의식을 지닌 '내'가 내 밖의 대상세계를 나의 눈으로 바라보는 구도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의식이 분명해질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른 존재를 이해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근대적 세계관이 낳은 불가피한 결과이기도 하다. 근대 경험론의 완성자인 흄에게서 우리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의 객체(대상)를 결코 알 수 없다.'는 회의주의적 결론을 보게 된다. 이는 곧 인간이 지닌 이성의 능력에 대한 불신, 인간 이성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를 함축하는 것이다.

'도덕감' 개념의 등장은 위와 같은 근대 인식론의 전개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근대 이전, 특히 플라톤주의적 세계관에서 도덕적 선은 우주 그 자체로부터, 즉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실체의 관점에서 이해되었다. 그러나 기계론적 우주관과, 계몽을 통해 스스로의 독자성을 깨닫게 된 해방된 주관 개념은 주체와 객체 사이를 확연히 구분 짓게 하였다.

여기서 무엇이 주관으로 하여금 한 객체(대상)로서의 선을 인식하고 또 지향하게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그래서 도덕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른 감각 기관들이 물리적 대상들을 인식하듯이 도덕적 대상들을 인식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모든 인간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에 관한 선천적인 관념' 혹은 '사회적 관련성을 고려하는 어떤 자연적인 가치의식'을 가지고 있다. 도덕 문제에서도 도덕적 가치를 판별하는 도덕감 혹은 자연적 감정이 존재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리키는데, 이 능력은 우리가 도덕적 대상들(인간의 행위와 감정들)을 지각할 때 필연적으로 작용한다. 이 세상에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이러한 도덕감 혹은 자연적 감정을 지니지 않은 사람은 있을 수 없다.

37. 위 글로 보아 '도덕감' 개념의 등장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철학의 주관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 ② 인식론에 대한 회의를 해결하기 위해서
- ③ 현상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 ④ 주체와 객체의 합일을 추구하기 위해서
- ⑤ 과학적 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38. 위 글과 관련지어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 우리가 '행위들'을 바라보거나 ㉡ 인간의 성향이나 감정들을 인식하자마자 곧바로 어떤 ㉢ 내면의 눈이 판별한다. 그리고 ㉣ 공정하고, 보기 좋고, 호감이 가고, 칭찬할 만한 것을 보기 싫고, 불쾌하고, 혐오스럽고, 비열한 것으로부터 ㉤ 구분해 낸다.

- 어느 도덕감 학자의 말 -

- ① ㉠: 주체 혹은 주관, 또는 자아에 해당한다.
- ② ㉡: 회의론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대상이다.
- ③ ㉢: 도덕감에 해당한다.
- ④ ㉣: 주-객이 분리되지 않은 낙원에 해당한다.
- ⑤ ㉤: 도덕감 입장에서는 인간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능력이다.

39. <보기>의 관점에서 [A]를 비판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인간의 자연적 감정은 본래 사람들 간에 언제나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선·악에 관한 일관된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없다.

- ① 정상적인 사람도 도덕감을 지니지 않을 수 있어.
- ② 도덕적 가치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 ③ 선함과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은 상대적일 수 없어.
- ④ 객체로서의 선 자체는 어느 상황에서든지 바뀔 수 없어.
- ⑤ 도덕감에 의한 판단에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어.

[40 ~ 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화옥이 셋째 부인 정씨가 낳은 아들 화진을 편애하자 첫째 부인 심씨가 이를 시기한다. 어느 날 화옥과 정씨가 병으로 죽게 되자 심씨와 그의 아들 화춘은 온갖 방법으로 화진과 그의 부인들을 괴롭힌다. 한편 화춘은 임 소저를 부인으로 두고 있으면서 다시 조씨를 첩으로 맞아들인다.

조씨 여자는 먼저 임 소저를 몰아내고자 하여 밤낮으로 춘에게 참소했다. 춘이 말했다.

“임씨의 죄는 내가 짐작하지만 만일 내쫓는다면 형옥(화진의 字*)이 뭐라고 할 게 분명하오. 성품이 강렬하니 이상한 일이라도 벌일까 두렵소.”

조씨가 박장대소(拍掌大笑)하며 말하기를,

[A] “상공께서는 형이시고, 한림은 아우가 아닙니까? 형이 그 아내를 내친다는데 아우가 어찌 감히 이상한 일을 벌인단 말입니까? 설령 임씨가 자결한다 해도 상공께서는 해로울 게 없지 않아요? 상공께서는 손바닥에서 일어나는 일도 처단하지 못하시니 가엾기 그지없습니다.”

춘은 오히려 주저했다.

하루는 춘이 장평과 범한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계략을 내기로 결단한 후에

죽우당에 이르러 당나라 역사책을 펼쳐 보는 척하다가 책을 덮고 진

에게 물었다.

“예전에 한나라 무제는 진황후가 투기가 있음을 알고 쫓아낸 일이 있었지. 그 임금의 처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은 형의 흥계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했다.

“남자는 양덕이요 여자는 음덕이라고 했으니 양덕이 음덕보다 강해야 바르다고 하겠지요. 한나라 무제에게도 본래 여색을 밝히는 마음이 있었으니 황후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자의 투기는 칠거지악 중에도 으뜸이니 내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춘은 매우 기뻐하며 어머니가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임씨가 쾌락하게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을 근심하고 괴로워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참고서 내치지 않은 것은 고모님께서 지나치게 사랑하시고 형옥까지 그 여자 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모님도 안 계시고 형옥도 이렇게 말했으니 입이 열 개라도 다른 말을 못하겠지요. 어서 지금 임씨를 내치고 조씨를 정실로 삼았으면 합니다.”

심 부인이 놀라서 말했다.

“그 애의 죄는 남편의 풍정을 받아 주지 않는 것뿐인데 어찌 투기가 있다고 하느냐? 나도 이미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춘이 여러 번 간청했으나 심 부인은 듣지 않았다.

이때에 조씨는 시비 난수를 시켜 범한과 통하게 하여 일을 꾸미도록 했다. 난수는 계향을 비롯한 여러 종과 합심하여 흉하고 끔찍한 물건들을 심 부인의 방에 묻었다. 그리고는 계향을 시켜 누군가를 저주하는 물건들을 파내게 하면서 “임 소저가 한 일이다.”하고 고하게 했다. 노한 심 부인은 며느리를 크게 꾸짖고 집 밖으로 내쳤다. 임 소저를 모시던 하인들이 정신을 잃고 울었다. 윤 부인과 남 부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탄했다. 화진은 관을 벗고 맨발로 계단 아래에 엎드려 통곡했다. 심 부인이 크게 노하여 말했다.

“임녀의 투기가 질투로 유명했던 옛날의 진황후보다 심하더구나. 공연히 남편을 거절하여 잠자리에 들지도 못하게 하니 경옥(화춘의 字)이 모자라지 않고서야 어찌 분하지 않겠느냐? 조씨가 들어온 후로는 임씨의 투기가 날로 더해져 천고에 없는 요상하고 간악한 변고가 내 침실에까지 미쳤구나. 이는 사람으로서 차마 할 수 없는 일이다. 경옥이 스무 살인데 아직 자식 하나 없으니 장차 임씨 여인 때문에 화씨 가문의 대를 끊어지게 하려는 게냐? 네 뜻을 보니 형이 후사가 없게 하여 가문의 혈통이 너에게 돌아가게 하려는 게 아니냐?”

진이 울며 읊하고 간하느라 이마를 땅에 부딪치니 피가 흘러 얼굴에 가득했다. 심 부인이 꾸짖어 말했다.

“내 며느리를 내가 내치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심 부인은 사내 종을 시켜 진을 문밖으로 내치게 했다. 진은 돌아가신 아버지가 거처하시던 백화헌에 가서 통곡했다. 조금 뒤에 범한이 백화헌에 갔다가 이것을 보고 놀라 꿇어 앉아 고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말을 들은 진은 분노가 일어나 건장한 사내 종을 시켜 범한을 붙들고 수십 바퀴를 휘두르게 했다.

“너같이 교활하고 흉악한 자가 어찌하여 재상가를 어지럽혀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하였느냐?”

범한은 기운이 없어 입만 병긋병긋할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은 다시 수십 번을 휘둘러 밖으로 끌어내게 했다.

이날 임 소저는 문밖으로 끌려 나와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사당을 향해 눈물을 흘리며 두 번 절하고 가마에 올랐다. 유모와 시비들이 울면서 따라가니 화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심씨 모자와 조씨 여인 외에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 조성기, 「창선감의록」 -

* 자(字): 본이름 외에 부르는 이름.

40.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춘은 성품이 바른 아내를 버릴 정도로 심지가 굳지 못하다.
- ② 조씨는 악행을 저지를 정도로 현실적 욕망을 중요하게 여긴다.
- ③ 임 소저는 쫓겨나면서도 시댁 사당에 절을 할 정도로 예의가 바르다.
- ④ 화진은 이마를 땅에 부딪치며 자신의 뜻을 보일 정도로 신념이 강하다.
- ⑤ 심 부인은 임 소저를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할 정도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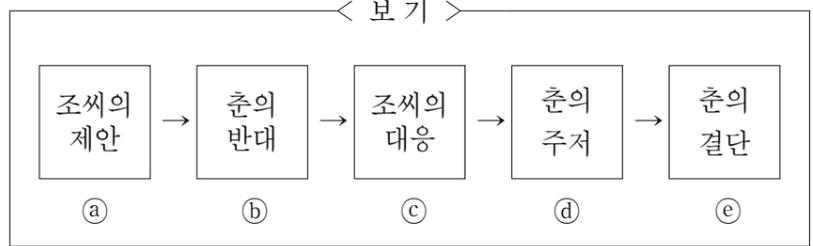
41. <보기>를 바탕으로 위 글을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창선감의록>은 17세기 후반 사대부에 의해 창작되었고, 봉건 사회의 신분질서가 흔들리면서 위기를 느낀 사대부들이 충, 효, 열을 통해 자기집단을 옹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은 소설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가부장제를 합리화하려 했고 부녀자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했다.

- ① 자식이 부모의 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모습을 그려 효를 강조하려고 했겠군.
- ② 한 가문의 처첩 간 갈등을 부각시켜 일부다처제에 대한 거부감을 담으려 했겠군.
- ③ 질투를 사건의 빌미로 삼는 모습을 그려 부녀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자 했겠군.
- ④ 가문의 대를 잇는다는 명분을 등장시킨 것에는 가부장제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겠군.
- ⑤ 첩이 정실이 되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그려 사대부 집안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한 경계를 담으려 했겠군.

42. [A]에 나타난 사건의 구조를 <보기>와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행동이다.
- ② ㉡는 다른 인물과의 관계를 고려한 행동이다.
- ③ ㉢는 상대방의 경쟁심을 부추기며 이루어진다.
- ④ ㉣는 상대방의 기대에 어긋나는 반응이다.
- ⑤ ㉤는 다른 사람들과의 의견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43. 위 글의 등장인물들이 <보기>와 같이 대화했다고 가정할 때, ㉠과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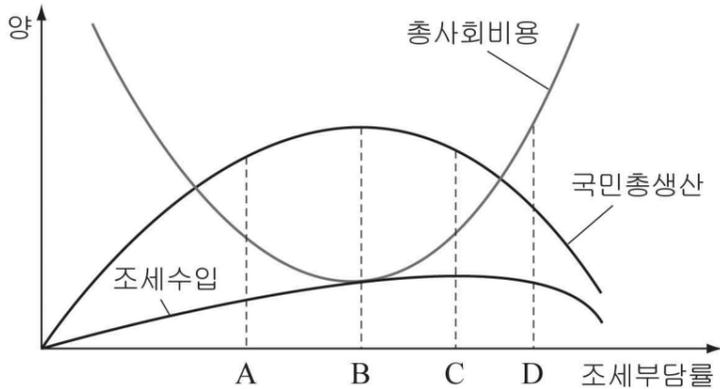
< 보기 >

화진 : 저는 형수님의 무고함을 믿습니다. (㉠) (이)라고 했으니, 참고 견디시면 머지않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임 소저 : 제가 부덕해서 벌어진 것인데 어찌 (㉡) 하겠습니까? 그저 어머니의 오해가 풀리길 기다릴 따름이지요.

- | | |
|--------------|------------|
| ㉠ | ㉡ |
| ① 사필귀정(事必歸正) | 수원수구(誰怨誰咎) |
| ② 새옹지마(塞翁之馬) | 감탄고토(甘呑苦吐) |
| ③ 고진감래(苦盡甘來) | 표리부동(表裏不同) |
| ④ 인과응보(因果應報) | 일희일비(一喜一悲) |
| ⑤ 전화위복(轉禍爲福) | 부화뇌동(附和雷同) |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총생산은 줄어들어도 C점까지는 조세 수입이 증가한다. B점을 지나면 국민총생산이 줄어 과세 대상은 줄어들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생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경제와 복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총사회비용도 조세수입과 국민총생산에 따라 변화한다. 총사회비용은 국민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 부분과, 조세의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총생산의 감소 부분을 합쳐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조세수입이 적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못해 총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사회비용은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줄어들어 총사회비용이 줄어들다가 B점에서 최저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된다. 왜냐하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 이것은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국가와 옹호하는 국가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처럼 조세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의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상당 부분 이념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4.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조세수입은 사회 복지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②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은 없다.
- ③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과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된다.
- ⑤ 국민총생산은 사람들의 근로, 저축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45. 위 글로 보아 <보기>의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A국은 지난 20여 년간 고도로 발전된 사회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총생산 감소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사회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없어 조세부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 ① 조세부담률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 ②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 ③ 경제와 복지 둘 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④ 국민들이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 ⑤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 여건이다.

46. <보기>는 두 집단의 주장이다.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의 현재 수준을 그래프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지문의 그래프를 이용할 것.)

< 보기 >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 ㉠ 집단 :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조세수입도 줄어들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 ㉡ 집단 :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조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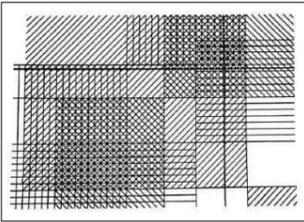
- | | | |
|---|---|---|
| | ㉠ | ㉡ |
| ① | A | D |
| ② | B | D |
| ③ | C | A |
| ④ | C | D |
| ⑤ | D | B |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예술에서 변형적 사고는 종종 새로운 발견을 이끌어 내어 창조적인 작품을 탄생시킨다. 특히 음악과 미술의 상호변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언급해 왔는데, 음악을 이미지로 변형시킨 대표적인 화가로 파울 클레를 들 수 있다.

클레는 음악을 듣는 청중처럼 관객들이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는 시각적 형태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클레는 바우하우스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자신의 실험과정을 공책에 기록했다. 그는 처음에는 음표를 간단한 그래프 모양으로 표시했다. 이는 음의 강도와 지속시간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한 단계 더 추상화시켜서 음표를 음들의 연속에 따른 선형 이미지로 만들어냈다. 이 단계까지는 실제로 ㉠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음자리표가 있는 것으로 상정되어 있는 만큼 연주악보로서의 기능을 아직 ㉡ 보유하고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표는 음의 지시기호가 아닌 이미지의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단계에서 클레는 선형 음표를 다시 순수한 선으로 추상화했는데, 이때에 이르면 음악악보와 관련된 어떤 것도 ㉢ 발견할 수 없게 된다.

클레는 작곡가들이 다성음악*을 창작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작품의 시각적 요소들을 '혼합'해서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작품 <5성부 다성음악>에서 그는 각기 다른 다섯 종류의 선을 그렸다. 이는 다섯 개의 '성부(聲部)'를 나타낸다. 이 선들은 각자 가진 고유한 특질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가로지르며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 우리는 패턴 전체를 ㉣ 조망하면서 동시에 각 부분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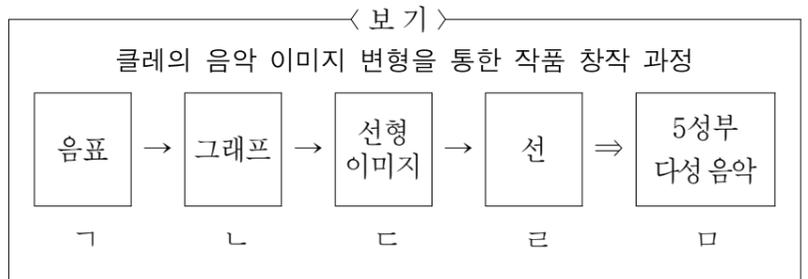
클레의 음악 이미지 변형 기법에서 특히 놀라운 것은 이 이미지가 원래 음악에서 발견할 수 없는 새로운 특성을 획득하게 된 점이다. 음악은 오로지 시간을 따라 한 방향으로 가면서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적인 다성음악은 어떤 방향에서든, 또는 방향들의 조합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음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성이 만들어진다. 어떤 정서나 생각, 자료를 변형하는 일은 결코 동일해질 수 없기 때문에 변형과정은 클레의 경우처럼 ㉤ 예기치 않은 발견을 낳을 수 있다. 그 결과 변형적 사고는 숭한 창조적 인물들이 의식적으로 채택하는 전략이 되고 있다.

* 다성음악 : 독립된 선율을 가지는 둘 이상의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

47.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추를 통해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② 단계적 순서에 따라 개념의 차이를 부각하고 있다.
- ③ 대상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속성을 규명하고 있다.
- ④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중심화제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
- ⑤ 대상을 여러 관점에서 파악하여 각각의 특징을 밝히고 있다.

48.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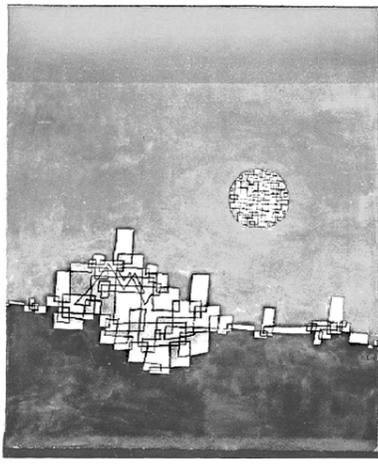


- ① ㉠에서 ㉣로 갈수록 추상화의 정도가 심해진다.
- ② ㉠에서 ㉢까지 연주악보의 기능은 유지된다.
- ③ ㉣은 ㉠과 다른 새로운 특성을 획득하였다.
- ④ ㉣을 추상화시켜 ㉤을 창작할 수 있다.
- ⑤ ㉤은 부분과 전체를 동시에 지각할 수 있다.

49. <작품 해설>에서 '음악에는 존재하지 않는 관계성'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은?

<작품 해설>

파울 클레, 「선택된 장소」



그림에는 하나의 선이 사각형을 무수히 형성하고, ㉠ 오른쪽 위 원형에도 같은 꺾은 선이 가득 차 있다. 환상적인 느낌을 자아내면서 ㉡ 마치 하늘과 땅, 그리고 푸른색의 수평선이 대우주의 질서를 상징하는 듯하다. 여기에는 ㉢ 음악에서의 모방 작법과

평행 선율법이 응용되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 창작의 모티브가 되는 음악의 기법은 찾아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클레는 이런 식으로 다수의 음악적 그림들을 남겼는데, ㉤ 그가 생전에 남긴 작품은 모두 9,146점에 이른다.

- ① a
- ② b
- ③ c
- ④ d
- ⑤ e

50. 문맥상 ㉠~㉤을 바꿔 쓴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나타내지는
- ② ㉡ : 가지고
- ③ ㉢ : 찾아낼
- ④ ㉣ : 돌아보면서
- ⑤ ㉤ : 뜻하지

※ 확인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